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 국보사이언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

국보사이언스는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해충 설치류 방역 약품을 6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기업의 철학에 맞춰 펜데믹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일맞는 해충·바이러스 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용 위생용품·동물약품 범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와 살서제 분야에 전문화된 업체로서 부단한 연구와 제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매년 생필품 및 후원용품 기탁 및 보건용 살충제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외계층의 방제 등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안호영 대표이사를 만났다.

(편집자주)

-국보사이언스는 어떤 기업인가?

국보사이언스는 1962년에 설립되어 기업 소재 주변 도로명이 '국보로'로 명명될 만큼 반세기 넘게 청주·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오고 있으며, 살서제·살충제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세계적으로 살서제의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해충 식독제 제품 등을 비롯해 에어로졸, 액체 전자 모기향 등 기피 살충제 제품, 그리고 최근 발생한 빈대 이슈에 효과적인 긴급 승인 가정용 살충제 제품까지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또한 품질보증(Q마크)업체 지정, ISO9001/2015를 통한 품질 경영 시스템 구축, LOHAS 인증 등으로 최고의 제품을 선보여 전 세계 60여 개국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살균제 및 구강용품, 동물약품,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적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연을 위한 인간, 인간을 위한 자연이 공생하고 서로 영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국보사이언스 전경.

"나눔·공감 키워드 바탕으로 지역맞춤 사회공헌할 것"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역할

-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나?

여름철 폭염·장마에 대비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불우이웃,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인성)에 매년 수천만원 상당의 소독제 및 치약세트 등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고 있다.

또한, 폭우 등 재난 및 수해지역에

살충제와 같은 방역용품도 지원하고 있다.

-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모든 기업들이 본업 특성에 기반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역할이 됐다.

탁월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루었기에 인정기업에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앞으로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

-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민간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최대한 사회공헌활동만큼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한 상태이다.

-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최근 환경문제, 기후불안정, 전염병 등의 심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든시기를 겪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의 고통이 더 심화됐다고 느꼈다.

이러한 이웃의 고통이 더 심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여 충북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고민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나눔'과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더빈컨벤션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17·18대 회장 이·취임식

신임 유회장 "미설치 지자체의 협의회 설립에 힘쓸 것"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충북협의회)는 지난달 29일 더빈컨벤션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제17·18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6년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제17대 김영석 전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이 출마하는 제18대 유응모 회장의 앞날을 축하하는 자리로 충청북도의 황영호 의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성이 회장을 비롯한 충북 내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인 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임회장 활동영상물 감상을 시작으로 이임사, 감사패 전달, 협의회 기 전수,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제17대 김영석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협의회장으로 재임했던 기간동안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많은 격

려와 사랑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별 탈 없이 주어진 소임 마무리하고 행복한 마음 안고 떠나게 되어 즐거웠다"고 말을 마무리했다.

새로 취임하는 제18대 유응모 회장은 취임사에서 "충북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시·군·구협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미설치 지자체의 협의회 설립에 힘쓰겠다"며 "충북협의회와 주요사업에 내실있게 튼튼히 하는데 노력하여 회장으로 부여받은 막중한 임무를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응모 신임회장은 대우재단 충청지역본부장, 통합 제1·2대 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대우공동산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재직하며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충북도, 청년 창업 우수기업에 자금 지원

내달 5일까지 청년 창업기업 모집, 1600만원씩 지원

충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4 청년 창업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기업으로 기술·홍보·판로·시설개선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16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창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청년기업의

성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안정적인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사업공고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국보사이언스 직원 단체사진.



국보사이언스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900만원 상당의 치약과 손소독제를 기부했다.

부담되는 목돈수술비

의료비후불제와 함께하세요!

신청자격: 도내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질환: 임플란트, 슬관절 인공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혈관, 뇌혈관,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간·위·맹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대출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후견인)

대출한도: 1인 50만원~300만원(이자는 도에서 지원)

상환조건: 36개월 무이자 분할상환

문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220-3192~3194



의료비후불제QR코드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제천시가 충북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

올해 12월 준공... 2025년 상반기 개원 예정

제천시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을 비롯한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김꽃잎 도의원, 김호경 도의원, 이정민 제천시의회장

및 시의원, 관계기관 단체장 등 내빈과 시민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제천시 하소동 43-12 일원(의림여자중학교 옆)에 건립되며, 지상 2층, 연면적 1375㎡ 규모로 모자동실(13개),

영유아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으로 조성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2월 준공 및 2025년 상반기에 개원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 제천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한 양육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산후조리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통해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격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청년·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모집

내달 1일부터... 기본서비스 월12시간·특화서비스 2개 등

진천군은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

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 책임을 지는 돌

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중장년이다. 지원 대상 나이는 13~64세이며, 소득, 욕구 등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비스 유형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서비스(돌봄·가사 지원),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로 구분해 진행한다. 또한 기본서비스 월 12시간, 특화 서비스 2개 이용 등 각 서비스를 혼합해 이용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 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연 보험료 2만원... 1만원은 정부 지원



청주시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지난 7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는 지난 7일 충청북도 청주시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청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

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 사업이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

복지시설(기관) 종사자 2000여명(282개소)에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과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청주시와 충북 지역 복지서비스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를 공제회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지역 사회복지 중진의 바탕이 되는 만큼, 공제회와 협력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주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용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www.043w.or.kr

충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지원 확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충주시 다자녀가정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 제공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에 대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와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아동별로 연간 960시간의 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 지원 금액은 소득 판정 여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 확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긴 시간 맡겨야 하는 상

황의 가정은 '영아종일제'로 월 단위로 80~200시간까지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비를 통해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이가 전염성 질병 등으로 보육 기관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보호자는 출근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충주시 가족센터(센터장 심재석)는 긴급돌봄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양군, 장애인 이동서비스 대폭 확대

올해 차량 2대로 확대... 월~토요일 오후 6시까지 운영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3월부터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 서비스 차량 2대를 2대로 늘려 확대 운영한다.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센터장 이윤구, 이하 센터)가 장애인 이동서비스를 대폭 확대

한다. 단양군에서 지원하고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운영 하는 센터는 이달부터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서비스 차량 기준 1대를 2대로 늘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2216명이 2050건의 이동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군은 올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확대를 추진했다. 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사회활동, 일상생활 지원,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등의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단양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43-421-7788)로 연락하면 된다.

음성군,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확대

영농 역량강화 지원... 11개 사업 82억원 투입

음성군이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영농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은 2024년 농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8개 사업과 농업인 영농활동과 역량강화 지원 3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82억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 안전 보장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 농작물 재해 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책 지원, 영농안정성 유지를 위한 농가도우미,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농업자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영농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과 농번기 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지원사업은 가사노동과 영농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확대를 위한 것으로 1년에 19만원을 지원하며 스포츠용품, 수영장, 미장원, 찜질방 등 다양한 곳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번기 공동급식소 지원사업은 농번기에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개 마을에 지원했으며 2024년 20개 마을까지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군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신청자 19명 전원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12억8000만원을 저리 융자 지원해 영농 안정화를 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에 대해 검진 및 상담을 지원 해주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만택 농정과장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영농안정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콜릿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일)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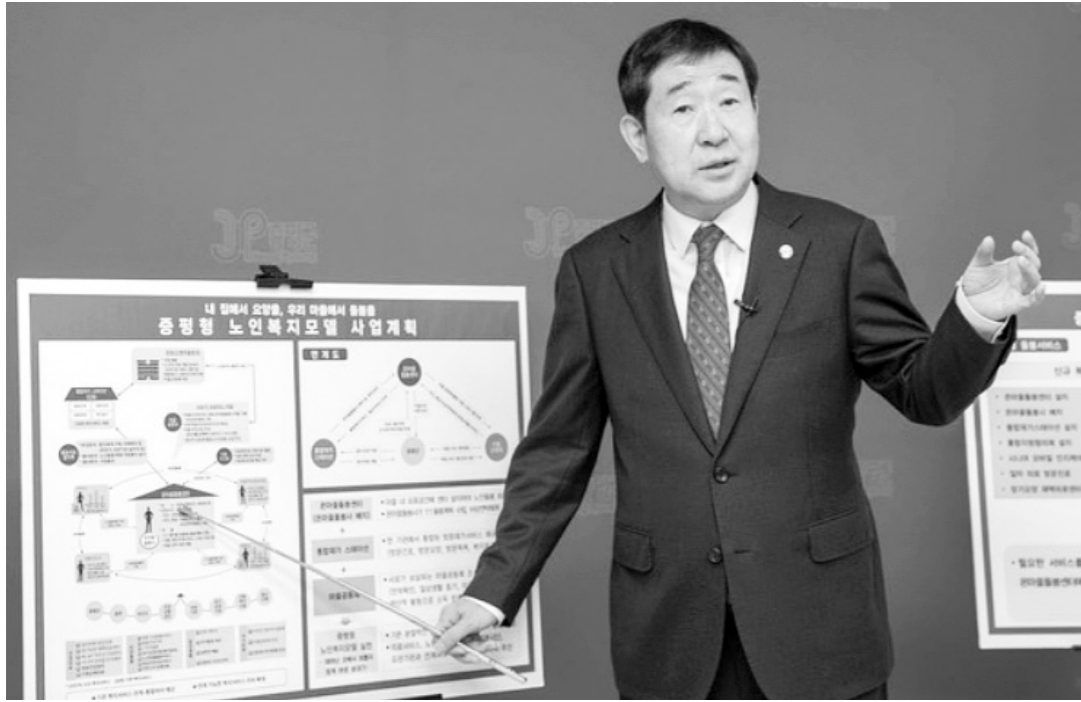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증평군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운영

시범마을 2곳 선정, 5월 본격 시행... 통합 재가서비스 설치 등



이재영 증평군수가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증평군이 노인의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을 위해 사는 곳에서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는 '증평형 노인복지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선제적으로 지역 특화된 노인돌봄 모델을 추진하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기시행되거나 계획돼 있는 정부계획과도 연계해 예산 운영의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3월 중 시범마을 2곳을 선정해 마을설명회 등 선행절차를 추진하고 5월 본격 시행에 나서며, 향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노인비용, 복지지원 등을 고려해 돌봄 취약 마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전달체계는 증평군, 온마을돌봄센터, 통합재가 스테이션, 마을공동체, 의료시스템,

통합지원협의체 등 6가지로 구성되며 차질 없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각 주체는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차별화된 '온마을돌봄센터'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휴공간에 설치·운영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가에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온마을돌봄사

가 근무하며 노인의 개인별 돌봄 욕구에 따른 1:1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제공한다.

야간과 휴일에는 이장, 마을지도자, 청·장년층 등 마을도우미 지정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24시간 공백없는 밀접한 마을단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개인이 이용하던 방문간호·요양·목욕 등 재가서비스가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스테이션'을 설치해 의료·요양·건강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은퇴의사, 의과대학생 등 의료자원봉사단체의 재능기부 활동도 연계해 원격의료시스템도 도입해 응급의료상황 및 만성질환 관리,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일시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재가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도 신설한다.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이동편의 증진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써 도보를 방해하는 요인을 찾아 시설물을 제거하고 가이드 설비를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고 가정에는 낙상방지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옥천군 "여성장애인 적극 지원 나선다"

교육·가사도우미·출산 비용 지원

옥천군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교육 지원사업,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출산 비용 지원사업 등이다. 교육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욕구 파악

을 위한 상담 후 기초교육·건강·사회활동·여가문화·경제활동 중심의 역량강화교육을 시행 하고 있으며,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장애인 가사도우미 2명을 선정해 여성장애인 5명에게 지원했으며, 대상자는 장애인복지관 사회진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선발된다.

장애여성기 출산 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시 태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1명

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포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황규철 군수는 "차별 없이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 소외지역 없는 평생학습 '앞장'

서예, 기타, 배드민턴 등 평생학습센터 운영

옥천군은 8개 면 지역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면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학습 공동체 육성을 위해 지역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면별로 취합해 8개 면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운영하는 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은 지역별로 동이면(난타), 안남면(줄바넌스), 안내면(배드민턴, 탁구), 청성면(서예), 청산면(아코디언, 라인댄스), 이원면(탁구, 노래, 기타), 군서면(기타), 군북면(서예, 건강요가) 프로그램이다.

현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각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평생교육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면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교육으로 미래를 만드는 옥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괴산군, '퇴원안정 돌봄서비스' 추진

병원 입퇴원 후 돌봄 필요한 75세 이상 대상 서비스 제공

괴산군이 입퇴원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원안정 돌봄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퇴원안정 돌봄서비스'는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병원 입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생활 지원 및 영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으로 괴산성모병원, 서부병원과 업무 협력체계를 구성해 추진한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으로 퇴원안정 돌봄서비스를 알게 돼 신청하게 됐다"며 "병원진료부터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인현 군수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충청북도가 주최한 시군 돌봄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괴

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업 '평생돌봄 톡톡'은 각 읍·면별 돌봄 매니저와 괴산군의 287개 마을(리)에 봉사자를 배치해 안전주거 집수리서비스, 퇴원환자 집중 생활안정서비스(퇴원 안정돌봄, 병원진료 이동서비스 등), 대형 침구류 세탁서비스, 저작기능 약화 노인 영양지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돌봄소 통창구 또는 괴산군노인복지관(☎043-834-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군, 장애인 물리치료실 본격 운영

복지카드 소유자, 매주 화·수 오전 9시부터 5시



보은군보건소는 장애인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보건소는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과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물리치료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운영하는 장애인 물리치료실에는 통증 관리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적외선 치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레이저 치료 등 다양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재활 운동 기구 및 작업

치료 도구 등이 갖춰져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재활 운동, 통증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건강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물리치료가 필요한 지역 장애인(복지카드 소유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이용자가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면 반드시 보건소 재활치료실(☎043-540-5656)로 유선으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홍종란 보건소장은 "군내 장애인들의 건강 수준 향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군, AI·IOT기반 노인건강관리 확대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AI스피커(화면형) 추가 제공

영동군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AI·IO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해 허약하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손목시계형 활동량 측정기, 블루투스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등의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스마트폰 미소지자에게는 AI 스피커(화면형)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여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비대면 건강 컨설팅과 맞춤형 건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완료 때 건강 컨설팅 미션을 성공한 참여자들에게는 단계별로 물품을 지급한다. 1년 뒤에는 재참여도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해 45대의 AI 스피커를 제공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3월 30대, 5월 추가로 30대의 AI 스피커를 제공해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의 건강관



영동군의 AI·IOT기반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모습.

리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 방문보건팀(☎043-740-5921, ☎043-740-3016)으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규격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 x 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 ~ 7면	4단 (360mm x 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 x 138mm)	컬러	250,000
	세로포스터 (150mm x 195mm)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역사회 복지 향상 힘쓰겠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1일 쌀 50포를 관내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기탁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유응모 회장 취임 기념 쌀 기탁 도내 사회복지시설 7곳... “어려운 이웃에 도움되길”

충북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는 지난 21일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기증받은 쌀 50포(500kg)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썬달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7개소(사단법인 희망

날개, 성보나의집, 진천원광 은혜의 집,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충북하나센터, 흥복양로원)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사회복지시

설(기관) 7개소를 대표해 김에자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장규연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원장, 박수미 충북하나센터 팀장이 참석해 기증받은 쌀을 전달받았다. 기탁된 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7개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기증식에 참석한 김에자 원장은 “청주시 장애인 복지 향

상을 위해 쌀을 지원해 준 유응모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기증받은 쌀은 도움이 필요한 관내 취약계층 및 시설 내 대상자를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유응모 회장은 “이웃과의 상생이라는 더 깊은 뜻에 공감하여 쌀 기증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회적 약자 복지증진 온힘

충북여성단체들과 협약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나정희)은 지난 15일 (사)충북여성인권(이사장 이순희),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소장 정선희), (사)충북여성인권부설 일반지원시설 다시봄(소장 박명숙)과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주시 지역 노인 권익증진과 성평등 인권 의식 확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5일 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젠더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노인 젠더폭력 피해 예방과 보호 지원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협약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수어교육원 ‘한국수어교육원’ 최종 지정

맞춤형 교육·전문가 양성

충북도는 충청북도수어교육원(원장 김영식)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2024년 한국수어교육원’에 최종 지정되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한국수어교육원은 한국수어사용촉진과 보급을 위한 기관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되며, 충청북도수어교육원은 전국에서 7번째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제2차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확대 계획으로 충청도와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회장 김영식)는 지난해 7월에 충북수어교육원을 개원하고 지정을 준비해왔다. 충북수어교육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충청북도협회에서 수탁운영하며, 기초·중급·고급반으로 구성된 과정별 수어교육, 학교·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 대상 출장교육, 법률·의료 전문분야 교육, 농문화육성사업(농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 농인가족 수어교육 등으로 운영된다.

충북수어교육원은 수어를 배우고자 하는 도민 누구에게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정별 수어 교육을 제공하여 농인과 수어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을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지난 1월 추가 상근 교육 강사를 채용 완료했다. 이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으로 충청북도수어교육원은 문체부로부터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를 초빙하여 수어교육을

진행하며, 맞춤형 교육 및 전문가 양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선희 문화예술평산과장은 “수어교육이 복지서비스가 아닌 언어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수어교육원 지정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수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식 원장은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2016년에 인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수어 및 수어사용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수어의 사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 사업에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 자원봉사 릴레이운동·이어달리기 발대식’에 참여한 충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온기나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릴레이 시동

200명 참석, 발대식 열어

충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낙정, 이하 센터)가 올해 ‘자원봉사 릴레이운동’과 ‘자원봉사 이어달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일 센터에 따르면 전날 충주시청 대회의실에서 100여 개 기관·기업·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자원봉사 릴레이운동·이어달리

기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결의문 낭독과 릴레이운동·이어달리기 기 전달,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퍼포먼스, 자원봉사 보수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자원봉사 릴레이운동 첫 주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시장애인 문화행사를, 이어달리기 첫 주자인 양성면향기누리는 홀몸노인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각각 전개할 예정이다. 릴레이운동은 기관·기업이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이어달리기는 예술·공연과 이·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김낙정 센터장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충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사업비 2000만원 확보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미숙)는 2024년도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로부터 연간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중점 사업으로 복지소외계층을 중점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자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발굴 대상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비수급자로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 자녀의 실질적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등이

후 복지소외계층의 욕구에 맞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사업 수행기관인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043-731-040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신규로 단양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종학),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은선)도 선정됐다.

단양노인복지관, 올해 ‘단빛반찬지원사업’ 시행

결식 우려 노인에 정기적 제공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이 결식 우려 어르신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70명의 어르신께 직접 밀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는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 단빛반찬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진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맛과 영양이 풍부한 밀반찬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단양노인복지관 관계자들이 결식 우려 어르신과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용자 70명의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밀반찬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또한 설날이나 추석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에는 그날에 맞는 특별식을 제공하고 여러 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줄 예정이다. 밀반찬 도시락을 제공받는 어르신들은 “따뜻한 음식을 매일

가져다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직접 쓴 손 편지로 고마움을 전했고 도시락 배달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은 “이 사업에 대해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권미희 영양사는 “단빛반찬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학비·교통비·문화비 각종 생활비 부담 완화, 마음건강·안전관리 지원 미래 설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대상 범위 확대 등

정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생활 걱정 해소 ▲청년정책 기반 확대 ▲체계적인 자산형성 ▲빈틈없는 취업 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
- ▶ 청년생활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서비스 제공 · 마음건강 첫 치료비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대학생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 ▶ 기반확대
 - 정부 · 지자체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 온 · 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 체계 구축
- ▶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가입 · 중도해지 요건 완화
 - 군 징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일시납입 허용
 - 청년도약계좌 창업 및 주택마련 연계 강화
- ▶ 취업지원
 - 15만명 재학생 고용서비스 제공
 - 10만개 일경험 기회 제공, 청년 해외교류 확대
 - 청년친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 완화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 시 지출금액 30%),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으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도 경감한다.

체험 · 관광 · 통학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 혜택 제공을 추진하며,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지역체류비 및 여가비 등의 경감은 물론 지역의 인구 유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 청년의 몸과 마음건강 안전관리 지원

청년들이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마음건강 검진 · 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추는 등 신체건강 바꾸쳐 이용도 보다 확대하고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 경험 등 해외 체류 중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을 제공한다.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 시 영사콜센터가 해외안전 핫라인 역할을 하고, 사고 대응 전문성을 갖춘 경찰 주재관과 해외안전 전담 영사도 확대를 추진하며, 공관 부재 지역에서 영사 지원을 하는 영사협력원도 확대 배치하여 해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

정부는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올해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금년중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하여 일시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청년층의 결혼 · 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청년의 국정운영 참여채널 확대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올해 221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 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부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 · 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 · 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해지요건도 개선하여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일자리지원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 지원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청년 개인의 금융 상황 평가부터 교육, 신용 · 부채상담, 자산형성 지원, 자산관리 서비스, 자립 기반 연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정책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 금융 상품 활용 교육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 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과 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주택구매에 활용하고 싶은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로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하여, 창업교육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성실하게 장기간 납입한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 가 점미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취업준비 지원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제공한다.

기업들의 수시 · 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24년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킴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더불어, 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하고 한국-EU 청년의 교류 확대를 위해 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차원의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지속 참여한다.

교류 · 파견 종료후에도 채용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 기반 창작서비스, 웨딩 · 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 분야의 성장 기반 마련, 청년 취업 ·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지원

청년들의 취업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 채용 비용 전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공공 · 민간 채용포털의 위법 공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거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국경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이며,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맘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1 '24년 제도개선 완료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p>2023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p> <p>2024 육아휴직급여 · 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p>	<p>2023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small>*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small></p> <p>2024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 <small>*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small></p>

2 '24년 제도개선 예정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p>2023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small>*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small></p> <p>2024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p>	<p>2023 특별중도해지 사유 <small>*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small></p> <p>2024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small>*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small></p>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 (예시)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
<p>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00만원</p> <p>1,260만원 일시납입</p>	<p>본안납입금: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X 42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144만원 + 관련이자 712만원 = 856만원 만기수령금 5,056만원</p> <p><small>* 글리 6%(기본글리 4.5%, 저소득층 우대글리 0.5%, 은행 우대글리 1.0%) 가정</small></p>	

일시납입금 1,260만원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지)	청년도약계좌 ⁴⁾	일반적금 ⁴⁾ (과세상품)
<p>(기본글리 연 4.5%)¹⁾ + 저소득 우대글리 연 0.5%²⁾ + 은행별 우대글리 연 1.0%³⁾</p>	<p>(기본글리 연 4.5%) + 저소득 우대글리 연 0.5% + 은행별 우대글리 연 1.0%)</p>	<p>(은행 정기적금 평균글리: 3.54%)⁵⁾ 시중은행글리: 3.18%)</p>
납입액: 4,200만원		
* 일시납 1,260만원 (70만원 X 18개월) + (70만원 X 42개월)	* 70만원 X 60개월	* 70만원 X 60개월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 (세전): 694만원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 (세전): 641만원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 (세전): 378만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세전): 162만원	정부기여금 및 관련이자 (세전): 160만원	이자소득세: 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0만원 (비과세)	이자소득세: 58만원 ⁶⁾

수익 + 856만원 (만기수령액 5,056만원)	수익 + 821만원 (만기수령액 5,001만원)	수익 + 320만원 (만기수령액 4,520만원)
----------------------------	----------------------------	----------------------------

1) 은행 제공글리는 가입시기별 ·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2년 변동금리 적용기간 중 기준금리는 현재와 동일 수준(3.5%) 가정

2)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적용되는 우대글리 (가입시기별 ·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우대글리는 가입시기별 · 은행별로 상이한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공시중

4) 매월초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5) '23.12월 기준 (은행연합회)

6)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 가정

복지광장

3.8세계여성의날과 성평등



한 영 숙

청주WCA여성종합상담소장

지난 3월 6일 충청북도청 서문에 보라색 모자, 조끼, 풍선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11시가 가까워지자 온통 보라색 물결로 뒤덮였고, 행사의 주관은 '충북여성연대'로 약 40여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청주뿐만 아니라 도내 각 시·군 각지에서 행사를 함께했다.

제116차 세계여성의날 기념 2024년 충북여성대회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백년이 넘는 시간동안 많은 여성들이 일터와 일상의 삶 속에서 성차별을 없애고자 끊임없이 외쳤다. 그러나 여성들의 외침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지 묻고 싶다면, 여성들의 외

침을 하나로 모아 성평등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다.

이어서 세 명의 지지발언이 있었다. "성평등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꺾이지 않고 아득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어떻게 나라와 사회를 지키고자 애써왔는지를 기억했으며, "애국 계몽운동, 국채보상운동, 축척과 조흔 제도 폐지, 돌봄 시설 운영, 아나바다 운동, 호주제 폐지 등 선구적인 성평등 운동을 전개한 여성들이지만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발언자는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지극히 평범한 본인의 하루를 차분하지만 호소력 있게 발언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 준비와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성년이 출근길에 오른다"며, 회사에서 일과를 보낸 후 퇴근을 해도 집안일을 하고 나면 어느덧 새벽 1시,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내일을 위해 마무리하기에 첫바퀴처럼 하루가 똑같이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사회가 바라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여성임을 티내지 않으면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연하게 해내는 것"이라며 주변 여성들에게 "괜찮으면 결혼 하지마!"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면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어떤 이에게는 미래의 자신, 어떤 이

에게는 현재의 자신, 또 어떤 이에게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다양한 감정이 들 어 가슴이 먹먹해지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여성과 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거리선전전이 시작 되었다. 참가자들은 상당공원 사거리부터 도청 서문까지의 양방향 도로변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하여 준비해 온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가자, 성평등 민주주의로!, 바꾸자 여성권자의 힘으로! 깨우자 내 안의 민주주의! 4월 선거, 성평등 후보 뽑자!,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는 문구가 반가운 불바람에 리듬을 맞춰 일렁였다.

해마다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로 올해로 116회를 맞았고, 유엔은 1975년 3월 8일을 기념일로 지정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여성의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에, 1996년부터 매년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당시의 주제는 '과거를 기념하며 미래를 계획하다'였다. 올해의 주제는 '포용을 고취하라(InspireInclusion)'이다.

우리사회는 UN에서 선정된 50년 전 과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인 과거들이 무수히 산적해 있으면서

또 새로운 과제를 맞게 되었다.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131년 이 걸리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세계 146개국 중 105위(출처: 세계경제포럼(WEF), 2023 세계젠더격차보고서)로 하위권이다.

유리천장지수는 OECD회원국 중 29위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12년 연속 최하위 14년째 성평등지수 1위이자 유리천장지수 1위인 아이슬란드는 남녀 동수 내각이다.

또한 여성국회의원비율 43%, 여성 장관비율 40%이다(2009년기준).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여성 30% 공천'이 권고 규정이지만 현재는 권고사항일뿐 의무가 아닌것에 머물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는 최소 138명(출처: 분노의 게이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보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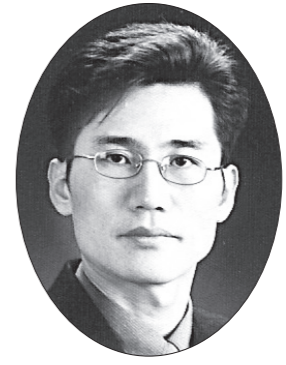
3.8세계여성의날이 더 크게 확산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밤이든 낮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주민이든 선주민이든, 소수자나 장애인이나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중 차별적 요소가 무엇인지 찾고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실천했으면 좋겠다. 보고서 하면 보이고, 자세히 보면 보인다.

건강칼럼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 하지정맥류 이야기



정 일 웅

청주의료원 1과과장

발과 다리 등 하지 쪽에 울퉁퉁하게 튀어나온 혈관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듣는 질환인 '하지정맥류'로 하지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혈액이 역류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며, 다리 혈관 중 정맥에 발생한다.

다리 정맥은 심장에서 돌아 오는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런 하지정맥류는 교사, 헤어드라이어 등 장기간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무거운 짐을 드는 직업군에게서 잘 발생하며, 더불어 임신이나 거들 착용으로 인한 하지 위쪽의 부분적인 압박상황 시 잘 발생하게 된다.

하지정맥류는 연령이 많을수록, 체중이 무거울수록, 키가 클수록, 섬유질 섭취가 적을수록, 변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리가 피로하고 무거워지며, 종종 다리가 붓거나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무감각감, 무기력감 등과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혈관염이나 출혈, 색소침착, 지방피부 경화증이나 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으로는 전문의가 해당 부위를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시진 및 촉진과 더불어 팔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이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심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도플러 초음파 검사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맥 혈액의 역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 치료와 정맥류가 생긴

혈관을 없애주는 경화요법, 레이저 및 베나실(VenaSeal)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서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며, 다리를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정맥류는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될수록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하지정맥류 자가 진단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며, 다음 증상이 있을 경우,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다리에 울퉁퉁한 핏줄이 튀어나오고, 거미줄 같은 핏줄이 나오는 경우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경우 및 자주 붓는 다리, 이유 없이 가렵거나 종아리 뒤쪽이 아리는 듯한 통증, 마지막으로 다리근육 경련으로 자주 잠을 설칠 때 등이 있다.

추가로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자면, 첫째로 장기간 서 있는 직업 및 가혹한 운동은 의욕을 단절시키며, 스타킹 및 붕대를 착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둘째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너무 조이는 옷이나 내의는 피하며, 환부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습진이나 궤양을 예방해 준다.

셋째로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할 경우 한 시간마다 5~10분가량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해 주며, 일이 끝난 후 장딴지를 중심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수면 시 다리를 심장보다 15~20cm 정도 높게 유지해 주면 좋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예방법을 숙지하여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보내길 기원한다.

현장의 목소리

어르신의 행복한 일자리,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소망



민 언 정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위해 함께 하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자, 주도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선배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소통하는 따뜻한 나의 일터이다.

이 곳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2년 차 사회복지사로서, 어르신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사회복지현장 선배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고와 기여를 존중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자신이 공동체를 돌보는 주제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이 있다. 공익활동형은 어르신의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세부 자격 조건과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돼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수를 2004년에 2만5천명에서 2017년에는 47만명, 그리고 2024년에는 103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원에서 2017년 5231억원으로 증액했고, 2024년 국비기준으로 2조2622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사업 운영의 부담감과 어르신들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내년에도 또 노인일자리 담당 할거지?"라고 여쭙보시며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매년 변경되는 것에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다.

어르신들과 노인일자리 담당자 모두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인력을 소망한다.

모니터링을 나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밖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좋아요" 등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있다.

또한 전년도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올해 재신청한 비율이 95%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첫 번째 '소득보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르신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두 번째는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돕는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과 활동성 강화'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개념은 소득을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고 공동체에 의미 있는 행동

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인식한다.

이렇게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단순히 일을 하고 소득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공동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더욱 확장된 의미를 부여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노고와 노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의 인적 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정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 비정규직 문제, 직원역량 강화와 소진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매년 증가하는 사업량으로 종사자의 업무소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지속하고 싶은 이유는 사회복지현장의 동료·선배님들의 도움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애정이 어르신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사회복지사들이 매 순간 희망의 빛을 잃지 않고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웃음은 힘들 때 따뜻한 위안을 주고, 행복할 때는 기쁨을 더해준다. 웃자, 나를 사랑하는 이유이자 결과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민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이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주조과)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마다 모시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나머지 형제들은 장남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며 동일한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또는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등에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법원은 기여분에 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속재산 분할에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제 위 사례의 경우도 상속재산 분등에서 기여분을 정당하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영모)에서는 3월 진행된 '2024년 제1·2차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에서 신규인증관리요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단 이해관계자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매년 8회 진행되고

있으며, 충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에게 다양한 분야의 봉사단이 운영하는 봉사활동 홍보, 위촉, 활동재료 지원 안내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사회봉사단은 봉사단체(동아리)를 지역별, 직능별, 재능별로 구성하여 전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통합형 자원봉사단으로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VMS에 가입된 봉사단체(동아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봉사활동에 필요한 활동재료(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상·하반기 도내 인증관리요원과 봉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질적 성장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복지정보 제공

[푸르메재단, 2024년 SPC 장애어린이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4.3.4.(월) ~ 4.4.(목)
지원대상: 특기적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
지원내용: 특기적성 교육비/교구 구입비(최대 200만원, 최대 8개월)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참고: www.purme.org

[한살림재단, 2024년 '꿈자람' 지원활동 공모]

- 사업내용: 지역 내 사회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지지 및 멘토링 중심 활동
공모대상: 한살림 지역조직
공모기간: ~2024.4.5.(금)
대상(사업 유형): 이주배경 또는 탈북 가정(정착 지원 멘토링), 청년·중년남성·고령자(생활 자립 멘토링), 아동·청소년(성장 지원 및 직업탐색 멘토링), 여성(힐링 및 정서적 지지 멘토링)
지원예산: 사업당 최대 4백만원
참여방법: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신청발표: 2024.4.19.(금) 본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참고: hansalimfoundation.org

[하트-하트재단, 2024년 소외아동 의료·생계·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2024.3.1~2024.11.30
지원금액: 의료비(연간 최대 300만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교육비(연간 최대 120만원)
신청기준: 공통(의료·생계·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내 아동·청소년 가정 / 의료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참고: www.heart-heart.org

[하트-하트재단,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 신청 안내(의료·생계·교육비)]

- 사업기간: 2024.3.1 ~ 2024.11.30(상시접수)
지원금액: 의료비(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생계비(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교육비(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
*사례선정 시 재단과 신청기관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 확정
지원내용: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신청기준: 공통(의료·생계·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저소득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

소득 80 이내 아동·청소년 가정), 의료비(만 18세 이하 긴급수술 필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참고: www.heart-heart.org

[월드휴먼브리지, 2024년 취약계층 임신부 양육 물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임신부 가정
기초수급자, 차상위·저소득(중위소득 80%), 다문화가정, 탈북민,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등
출산 전~생후 36개월까지
지원내용: 취약계층 임신부를 선정하여 양육에 필요한 용품 및 생필품 구입 또는 현금 지원
- 1인당 육아용품/생필품(현금) 지원~40만원 이내(예산소진시 지원종료)
신청기간: ~2024.12.31.(화)
신청방법: 시설, 단체, 기관 등의 담당자(사례관리자, 복지사 등) 통해 신청(이메일 제출)
참고: www.whb.or.kr

[월드휴먼브리지, 2024년 산후우울증·양육 심리상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부모(임산부) 가정
지원내용: 산후우울감, 우울증 또는 아동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부모에게 심리상담비를 지원
- 1인 최대 190만원/24회기@1
신청기간: ~2024.12.31.(화)

[기아대책기대플러스, 취약계층 아동가정 캠페인 사례 모집]

- 모집대상: 매우 열악한 환경의 취약 가정으로 아동을 포함한 가구, 기아대책 모금 캠페인/방송 사례 제공 및 촬영에 동의한 사례 가정 모집
* 신청 가능 아동 나이는 만 18세 이하
모집내용: 복지사각지대 가정으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지닌 아동을 포함한 가구(아동의 경우, 아동 1인가구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으로 지원기준을 충족한 가구
지원규모: 최소 1백만원~최대 1천만원 지원
신청안내: 공공기관/복지기관/학교/병원 등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을 통한 발굴 및 신청(개별 신청 불가)
신청기간: 연중 사례 모집
신청안내: 매주 심사 진행 및 선정 시, 기관 담당자 개별 안내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기아대책 기

대플러스 홈페이지(hope.kfhi.or.kr)를 통해 접수

[KBS강태원복지재단, 2024년 위기가정 긴급발굴·긴급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기간: 2024년 2월~12월,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예정
접수기간: 월 2회(1일~10일, 20일~31일)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단위 NPO 협의 체결 기관에 한함)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수급자의 경우, 현재 수급비를 지원 받고 있는 동일한 항목 지원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항목별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및 선정 기관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
추진절차: NPO 협약->위기가정 지원 신청->심사, 선정공고->지원금 지급, 사례관리, 결과보고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www.kbsktw.com) 접속 후 온라인 신청

[기아대책기대플러스, 2024년 위기 이주배경가정 긴급지원사업]

- 사업대상: 상시
사업대상: 위기 이주배경가정(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이주배경가정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 가정을 우선으로 지원, 위기 극복 의지가 있는 가정)
신청방법: 기대플러스 홈페이지(hope.kfh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회복지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병원(사회사업실이 있는 상급병원), 학교, 교회 등
지원내용: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정서치료 중복 최대 500만원 지원

[한국장애인재단, 긴급지원사업 수요자 신청 안내]

- 사업기간: 연중수시
지원자격: 국내 등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신청기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연속 기준 기관당 1명 지원)
지원예산: 건당 최대 300만원
접수방법: 제출서류 이메일 접수
지원 요청 사유: 자연재해·재난피해
지원항목: 자연재해·재난피해(화재, 태풍, 홍수, 지진 등), 의료비(난치성 질환 및 상해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생계비(주거비, 생활비) 등
참고: kfpxd.org

자원 봉사자 모집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846-2253

▶초등학생 돌봄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충주시남이다함께돌봄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91-4000

▶단순 업무보조 및 환경정리 등
관리센터: 충주시장애인단체지원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93-3650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충주시사회복지관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53-4493

▶초등 돌봄 및 학습지도
관리센터: 원광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52-2535

▶사진촬영 보조
관리센터: 휴먼케어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299-3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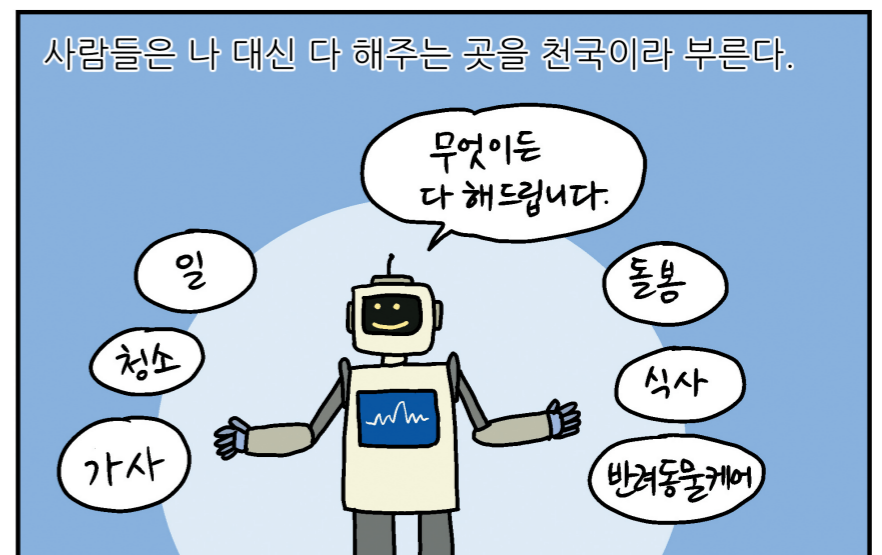
▶시각장애인 캠프, 캠프닉 보조
관리센터: 충주성심맹아원
활동기간: 4.1 ~ 4.30
전화번호: 043-843-1432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천국과 지옥

이창신 www.bokmani.com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곳은 지옥이다.

